

지역 소식통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

군산시는 시정 생활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체결한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착수보고회를 가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월명동 영화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올 연말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진단과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이다.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군산의 성장을 견인했던 대규모 산업단지와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지역별 자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문득신 군산시장은 "군산의 원도심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진행됨에도 군산과 분리된 느낌이 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본 용역에서 원도심과 신단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정현을 시장, 유림 원로들과 '화합과 소통의 간담회'

정현을 익산시장이 30일 익산을 대표하는 지역 유림 원로들과 화합과 소통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재진 회장(익산시 향교유림연합회장) 및 4대 향교와 성균관유도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임원들이 화합의 자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과 향교 유림 원로들은 지역 발전방향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역 유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0여명 대상 재무회계교육 실시

군산시는 30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시설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시 복지지원과 이동철 재활복지계장의 진행으로 재무회계의 법적근거와 중요 규정, 예·결산을 통한 회계처리, 후원금 관리 등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군산=김판곤기자

차량용 LED 제조업체 미국 IGT Lighting

합열 농공단지에서 새 둥지 틀어

익산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3년간 400억원 투자 LED 관련 제품 생산

익산시(시장 정현을)와 미국의 차량용 LED제품 제조업체인 IGT Lighting(주)이 30일 오후 시청 상회실에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IGT Lighting 김정훈 이사, IGT Lighting 정자준 국내대표, 익산LED협동조합장(주) 김관식 대표 등이 참석했다.

IGT Lighting(주)은 향후 합열농공단지에 3년간 6만6,000㎡부지에 400억원을 투자하고, LED 관련 제품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동남아 유럽 등 세계 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100여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합열 지

역은 물론 북부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MOU체결은 국제적 문제로 중국의 기업투자가 담보상태인 시기에 익산시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GT Lighting(주)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아 및 중동지역의 상업용 및 주거용 고화질 평면 패널 제품 업체로 판매매출 4,500만불에 직원 3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한국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익산 합열농공단지에서 투자양해를 적극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GT Lighting(주) 대표인 앤드류 박

(ANDREW PARK)은 1999년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의 '올해의 기업가'를 수상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 IGT Lighting(주)의 정자준 국내대표는 김제가 고향으로 한국과 학기술원 공학박사 취득 및 세계 제1의 메모리 반도체 국가로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석학으로,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전문회사인 비손에너지 설립자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IGT Lighting(주)이 우리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익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선정식·출판기념회

김도중 원광대 총장 인재경영 부문 수상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이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선정식 및 출판기념회에서 인재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와 중앙산데이가 주최하고, JTBC,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7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선정은 2016년 한 해 동안 탁월한 경영정책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적인 경영 환경 개척에 힘쓴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CEO의 경영비전·전략·철학, '비전제시', 리더십 행사실적 및 성과, '최고경영자의 전략적 브랜드 가치 등 평가항목별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014년 12월 원광대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도중 총장은 뛰어난 리더십과 의욕적인 추진력으로 대학의 유·무형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학의 개념을 바꾸고, 창조(創業), 창업(創業)능력을 길러 미래직업을 창조하는 경영철학 실천에 앞장서 왔다.



김도중 총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대

로 취임한 김도중 총장은 뛰어난 리더십과 의욕적인 추진력으로 대학의 유·무형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학의 개념을 바꾸고, 창조(創業), 창업(創業)능력을 길러 미래직업을 창조하는 경영철학 실천에 앞장서 왔다.

/*익산=장왕원기자

ECO융합섬유연구원, '의류생활용 섬유기획·개발역량강화사업' 추진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28억원을 확보하여 4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융합섬유원에서 추진하는 의류생활용 섬유 기획 및 개발 역량강화사업은 국내외 패션소재시장을 리드하는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원사기업과 다양한 원단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집중형 협업사업으로 소재시제품 개발을 위한 맞춤형 트렌드정보제공, 시제품제작 및 기술컨설팅, 수혜확대 맞춤형 프로모션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기업은 (주)성실섬유, (주)스피라, (주)오가나코리아 등 5개사

이며, 기업당 1.600만원의 재료가 지원된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패션소재 트렌드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사업결과 홍보를 통해 국내 패션소재산업의 수출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학교병원

환자·보호자 양·한방 심포지움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손과 발의 관절을 사용하는 활동양이 많아지는 관계로 어깨와 무릎에는 많은 질환들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 시대에 흔한어깨와 무릎 관절질환에 대해 동양의학의 원인과 치료법들을 한자리에 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려 화제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무영)은 교수연구동 5층 소강당에서 환자·보호자를 위한 양·한방 심포지움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환자 보호자 관심 있는 고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병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와 원광대 한방병원 침과, 재활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김정우 교수(정형외

과)의 "흔한 어깨의 질환", 이성현 교수(정형외과) "흔한 무릎 질환, 주민철 교수(재활의학과) "로봇재활" 강연에 이어 원광대 한방병원 조남근 교수의 "어깨 수술 후 한방 재활치료", 이정환 교수가 "무릎 수술 후 한방 재활 치료" 등의 주제 강의를 통해 동일 질환에 대한 양·한방 치료법들을 접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원광대병원과 원광대 한방병원은 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 진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한방 진료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는 등 양·한방 협진 진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2030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 가동

군산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농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2030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시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귀농한 청년 창업농과 부모의 영농을 승계하려는 후계 영농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리더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승계·창업농의 영농정착 지원 정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올 초 기초단계로써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와 함께 영농활동을 하거나 영농을 준비하고 있는 35세 미만 청년 영농인 93명을 발굴했으며,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변화에 따른 영농후계 세대 성공전략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2030세대 맞춤형 리더과정 4월 교육에는 농지지원 사업, 영농 승계 시 알아야 할 세무 지식, 농업관련

법규 등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강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도전·열정·꿈을 가진 청년 농업인의 성공 의지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한 제명인사 특강과 청년농업인이 바라보는 미래농업에 대한 자유 토론의 장으로 농담(農談)토크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헌조 농촌지원과장은 "2030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수월된 젊은 피로 활기찬 군산농업과 인구 늘리기 시책에 부합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부모님 영농승계자, 귀농창업자, 직장(학업)과 영농활동을 겸하고 있는 39세 미만의 영농인 통계현황을 토대로 더 많은 청년 인적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포스터 게시 등 청년농업인 찾기 홍보활동을 4월 말까지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기자

A large promotional banner for Gunsan City. It features a colorful background with stars and a young girl holding a paintbrush. The text includes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and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Logos for DreamHub GUNSAN and GUNSAN CITY are visible in the top right corner.